

5주 2020년 하계방학 목상지

7월 20일 월요일	<말씀목상>	수 19-21
<p>• 내용요약: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평화를 정착시켰던 사사들의 출현이 중단된 후 점차 혼란과 타락이 극으로 치달았던(17-18장)이שראל은 19장에 이르러 또 한 번 동족상잔(12:1-6)의 원인이 된 추악한 범죄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레위인 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에 이르게된 배경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목적으로 레위인을 요구한 사실, 불량배들에게 밤새 강간당한 레위인의 첩과 그 일을 진역에 알린 레위인의 분노가 소개된다. 20장에는 첩을 잃은 레위인의 간청으로 소집된 미스바 총회에서 기브아 성읍에 대한 심판이 결정된 사실, 이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단호한 거부,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에 걸쳐 베냐민에 패배한 사실, 마침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들이 살육을 당하고 성읍이 초토화된 사실을 기록한다. 21장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지파동맹이 다시 미스바총회로 모여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사건을 기록한다.</p> <p>• 질문: 기브아성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대상을 무엇을 하려 했는가?(19장)</p> <p>• 생각하기: 하나님없이 인간이 주인이 된 곳에는(수17:6) 인간의 영육을 쪼 먹는 죄안과 타락의 독버섯이 반드시 자라나게 마련이다.</p>		
7월 23일 목요일	<말씀목상>	삼상 26-28
<p>• 내용요약: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르의 기지(機智)로 다윗이 무모한 살인의 범죄를 모면했던 사건을 다룬 25장에 이어 26장에는 엔게디 동굴사건(24장) 때 약속을 지키고 재차 다윗을 추격한 사울의 악행과 그럼에도 거둬 용서하는 인내를 보였던 다윗의 아름다운 행적을 소개한다. 엔게디 동굴사건(24장)과 흡사하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온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음으로써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26장) 다윗은 28장에서 21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국경을 넘어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피신한 사건을 기록한다.</p> <p>• 질문: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사건은 무엇인가?</p> <p>• 생각하기: 죄악은 습관적이다. 지난번 저지를 죄를 아무리 깊이 후회했어도 얼마 후 다시 동일한 죄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이 죄악의 악한 성질이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써는 이길 수 없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롬3:10).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붙잡아 주실 때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다</p>		
7월 26일 일요일	<말씀목상>	삼하 4-6
<p>• 내용요약: 점차 흥성해가는 다윗집안과 그에 반해 분란과 불화가 계속되던 사울 집안을 대조해서 소개했던 3장에 이어 4장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하의 손에 무참히 피살되는 장면을 소개한다. 사울집안을 떠받들고 있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이스보셋이 기(氣)가</p>		

7월 21일 화요일	<말씀목상>	삿 10-12
<p>• 내용요약: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이끌었던 아비멜렉의 정변(9장)이 지나간 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내의 새로운 위기가 몰려온 사실을 소개한다. 이스라엘을 위한 아름다운 행적이나 공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두 명의 사사(돌라, 야일)에 관한 보고와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맡기신 사실을 소개한다. 기드온 사후 그의 서자(庶子) 아비멜렉의 실정으로 극히 혼란했던 이스라엘은 사사 돌라와 야일 통치하에 잠깐 평안을 되찾은 듯 했으나 바로 우상숭배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을 맞아 위기에 차하게 된다. 11장은 이 같은 위기 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사 입다의 등장과 혁혁한 전공(戰功)을 소개한다. 12장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비천한 신분임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냈던(11장) 사사 입다의 슬픈 승전이 있는 후 직후 발생한 이스라엘의 뼈아픈 동족상잔(同族相殘)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다.</p> <p>• 질문: 기생의 아들이라는 비천한 신분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는?(11장)</p> <p>• 생각하기: 사사 돌라와 야일의 행평기 동안 하나님의 결을 떠나 세상길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혹 우리는 주어진 화평과 안식의 축복을 범죄와 타락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가?</p>		
7월 24일 금요일	<말씀목상>	삼상 29-31
<p>• 내용요약: 블레셋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심히 당황한 사울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신첩한 여자를 찾아 사무엘의 환영을 만난 일을 소개한 28장에 이어 29장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할 뻔한 다윗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30장에는 다윗이 시글락에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의 침공으로 시글락이 약탈당한 사실(1-6절)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용기를 덧입은 다윗과 그 일행이 약탈자들을 뒤쫓아 가서 아말렉 약탈자들을 무찌른 사실(7-20절) 및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진리품을 분배한 사실(21-25절)등이 소개되고 있다. 31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게 된 슬픈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p> <p>• 질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느 전투에서 최후를 맞는가?(31장)</p> <p>• 생각하기: 감래하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신앙의 사람도 슬픔에 잠길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절망할 수는 없다.</p>		
7월 25일 토요일	<말씀목상>	삼하 1-3
<p>• 내용요약: 사울과 그 군대가 블레셋 족속을 맞아 길보아전투에서 패배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 및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전사하였다(삼상 31장). 삼하1장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한 한 군사를 통해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심히 슬퍼하는 장면을 기록한다. 2장은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의 왕위에 오른 다윗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치사하는 장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왕으로 나선 장면, 이스보셋 측의 공격으로 이스라엘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된 장면, 다윗 군대의 우세속으로 일단 내전이 휴전상태에 이른 장면을 소개한다. 3장은 극명히 대비되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성쇠(盛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p> <p>• 질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다윗의 자세는?(1장)</p> <p>• 생각하기: 다윗에게 사울은 생명을 노략하러던 대적이요 원수였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는 등의 진지하고 성실한 조의를 표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이어야 할 것이다.</p>		
7월 27일 월요일	<말씀목상>	삼하 4-6
<p>6장에는 지금껏 방치되어온 법케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명실상부한 신정적(神政的)왕정 국가를 만든다.</p> <p>• 질문: 다윗이 왕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6장)</p> <p>• 생각하기: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뛰어난 처세술이나 활달한 인간관계인가? 아니다. 법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인정하시며 그를 세우신다(삼하 5:22-23).</p>		

이름: _____ 학번: _____		
7월 22일 수요일	<말씀목상>	삼상 22-25
<p>• 내용요약: 사울의 추격을 피해 놉 땅으로 피신했던 다윗이 다시 국경선을 넘어 블레셋 족속의 땅 가드로 숨은 사실을 소개한 21장에 이어 22장은 다윗을 찾지 못한 사울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협조한 제사장들을 무참히 학살해버린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23장에는 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계속 도피해야 하는 다윗의 피곤한 도망자 생활이 소개되고 있다. 블레셋의 위협을 받던 그일라를 다윗 일행이 구원해 준 일(1-6절), 구원받은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한 일(7-13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14-18절), 십 사람의 밀고로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다윗이 간신히 구원받은 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25장에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의 죽음(1절)과 부자 나발의 푸대접에 분격한 다윗이 그를 살해하려 한 일(2-13절), 이 같은 사실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불행한 사태를 막고자 지혜롭게 중재에 나선 일(14-31절) 및 아비가일의 행동을 감명 받은 다윗이 그녀에게 축복하고 약속을 한일(32-35절), 나발이 죽은 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일(36-44절)등을 소개하고 있다.</p> <p>• 질문: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찾아다녔던 이스라엘 왕은?(22장)</p> <p>• 생각하기: 다윗을 받쳐주고 있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광야 같은 현실도 이겨낼 수 있었다.</p>		
7월 24일 금요일	<말씀목상>	삼상 29-31
<p>6장에는 지금껏 방치되어온 법케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명실상부한 신정적(神政的)왕정 국가를 만든다.</p> <p>• 질문: 다윗이 왕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6장)</p> <p>• 생각하기: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뛰어난 처세술이나 활달한 인간관계인가? 아니다. 법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인정하시며 그를 세우신다(삼하 5:22-23).</p>		